

타이, 중소기업 20만개 폐업·이전

4월부터 최저임금 40% 인상으로 ... 외국인투자도 25% 감소 불가피

타이 정부가 4월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중소기업 20만개가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4월3일 보도했다.

타이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와 저소득 노동자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4월부터 방콕 등 7개 주요 도시에서 1일 최저임금을 300바트(1만950원)로 40%가량 인상했다.

부민 하린쑈 타이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“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10%에 해당하는 20만개 정도가 6개월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”면서 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업, 보안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또 “일부 외국기업들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으로 우려된다”면서 “타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모가 연간 4000억바트(14조6000억원) 정도(25%) 감소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06>